

부부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홍 명 선(대구대학교 박사) · 정 영 숙(대구대학교 교수)

I. 연구목적

인간은 출생부터 함께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사회환경이 가정이며, 그 중에서도 세상에 태어나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일 것이다. 인간을 둘러싼 수많은 물리적·인적 환경 중에서도 인간과의 관계로 인한 환경적 요인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가족생활의 중심이 되는 부부는 자녀인 청소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정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 중에서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키고, 동시에 외부에서의 활동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로를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여 새로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에게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모를 중심으로 한 형제자매들과의 건강한 교류를 통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태어나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환경인 가정에서의 부부불화 및 갈등은 이러한 필요한 돌봄 기능을 약화시켜 성장 후 성인이 되어서도 심각하고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자녀관계가 원만치 못할 경우 청소년의 다양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학업성취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열등감과 갈등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어렵게 되면서 학업성취에도 방해를 받아 성공적인 발달과업의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학습의 장 일 뿐 아니라 외부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거나 소외되는 일이 있어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고 용서받으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심리적 안정을 주는 곳이다(김말남, 2009).

또한 자녀는 최초의 밀접한 대인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를 통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게 되는 여러 대인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이처럼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부부갈등에 있어서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논의를 통하여 건설적으로 잘 해결 할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의 갈등해결 능력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비효율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예를 들어 위협, 폭언, 폭력적 행동)으로 해결할 경우 이는 대립 자체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서로에게 회복하지 못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히게 될 뿐 아니라 자녀에게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청소년 자녀에게는 이러한 부모의 갈등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된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의 격동기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부모의 성격, 양육태도, 부부관계 등 그들을 둘러싼 가족환경이야말로 청소년의 성격형성과 함께 전반적인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구성원이 미치는 가족환경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부모와 밀착되어 의존하던 아동기에서 벗어나 서서히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있는 청소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신체적·정신적으로 독립을 희망하고, 가치관확립,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형성 등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한 사람의 인격체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와의 정서적 교감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되고 사소한 의견충돌에서부터 다양한 갈등양상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격변기의 청소년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을 지켜봄으로써 받게 되는 다양한 영향들을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유형화에 따른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정환경 중에서도 그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부부갈등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여 부부갈등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규명된 부부갈등유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부부갈등유형을 포함한 가족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부부갈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은 상호작용으로 각각의 갈등요인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구조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갈등 유형 및 정도를 결정하는 특성을 지닐 수 있다. 갈등요인이 모두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으며 관련된 내·외적 요인간의 조화 또는 부조화는 청소년이 지닌 문제를 증식시키거나 지속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위험요인간의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위험수준 그 자체만큼이나 청소년의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가족환경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부부갈등 상황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인생의 중요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인생의 전환기에 놓여있는 청소년 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부부갈등유형은 상호 연관된 요인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위험요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 요인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어떤 위험요인들은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 위험요인의 수준증가는 다른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요인들 간에는 상호 내재적 구조를 가지므로 각 위험요인은 통합된 구조 내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분요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요인유형은 위험요인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상호 관련된 위험요인들로 구성되고 그러한 위험요인들은 결합하여 하나의 부부갈등유형을 이룬다. 각 위험요인은 통합된 전체의 부분이므로 부부갈등유형의 한 요인의 위험수준 증가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줌으로 인해 전반적 위험수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부부갈등유형의 위험요인들 간의 관계는 각 위험요인이 지닌 특성에 기초하며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유형을 규명함으로써 그들 상호간의 관련

성과 나아가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자료 수집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대구·부산·대전광역시 및 경북(구미시, 청도군, 예천군)·경남(합천군)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여 학생 1,567명을 대상으로 2012년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 걸쳐 4주 동안 실시하였다. 설문지 총 1,567부를 배부하여 1,522부를 회수하여 회수율은 97%였고 최종 분석에 적용된 설문지수는 1,467부이다. 조사대상자는 중·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학교는 대구광역시 소재 남자 중학교 1개소와 고등학교 2개소(총 3개소),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여자 중·고등학교 각 1개소와 남자 중학교 1개소(총 3개소), 부산광역시 소재 여자고등학교 2개소와 남자 고등학교 1개소, 남자 중학교 2개소(총 5개소), 대전광역시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소로 총 12개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특정학교와는 상관없이 대구광역시, 경북 구미시·청도군·예천군, 경남 합천군 지역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여 본 연구의 조사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측정 도구

측정도구는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개념(6개 영역 구분) 검사지,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갈등 척도 등의 2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영역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부갈등 척도 22문항, 6개 영역의 자아개념 검사지 99문항(일반 자아개념 15문항, 학급 및 성취 자아개념 18문항, 가족 자아개념 21문항, 사회 자아개념 18문항, 정서 자아개념 14문항, 신체 자아개념 13문항)에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부부갈등유형별 신뢰도는 물리적 충돌형은 Cronbach α 계수가 0.913, 의견 불일치형은 0.814, 자녀문제 갈등형 0.796, 문제해결 지향형 0.766, 가족해체 우려형은 0.857로 신뢰도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내적일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모두 0.6이상을 보여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유형별 자아개념의 신뢰도는 일반적 자아는 Cronbach α 계수가 0.852, 학급 및 성취 자아개념은 0.881, 가족적 자아개념은 0.933, 사회적 자아개념 0.838, 정서적 자아개념은 0.827, 그리고 신체적 자아개념은 Cronbach α 계수가 0.759인 것으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유형의 규명은 갈등요인간의 관계를 기초로 한다. 부부갈등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개의 변

인들을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개의 요인으로 집약하여 묶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변인 간에 공통적인 요인 혹은 인자를 찾아내어 각 변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정도를 산출하고 그리고 공통적인 구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요인분석에 의해 묶인 공통요인은 Cronbach α 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회전하였다. 둘째,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PC Ver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Ⅲ. 분석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70.6%)이 여학생(29.4%)에 비해 상대적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이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학교 3학년은 25.8%, 고등학교 1학년이 22.8%, 중학교 2학년이 5.9%, 고등학교 3학년이 4.7%, 중학교 1학년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성적은 중이 58.0%로 상대적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가 24.4%의 분포를 보였고, 상은 17.5%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모동거 여부는 양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82.7%로 상대적 분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9.4%, 부와 동거하는 경우는 4.4%,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2.1%, 기타가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동거 사유로는 이혼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부모직장으로 인한 비동거가 25.5%, 사별이 16.0%, 기타가 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본인의 종교가 무교인 경우가 54.4%, 불교 21.7%, 개신교 17.1%, 천주교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N (평균)	% (표준편차)
성 별	남자	1,036	70.6
	여자	431	29.4
	합계	1,467	100.0
학 년	중1	49	3.3
	중2	86	5.9
	중3	379	25.8
	고1	335	22.8
	고2	549	37.4
	고3	69	4.7
	합계	1,467	100.0

<표 1> 계속

변 수	구 분	N (평균)	% (표준편차)
학교성적	상	254	17.5
	중	841	58.0
	하	354	24.4
	합계	1,449	100.0
부모동거 여부	양부모	1,206	82.7
	부	64	4.4
	모	137	9.4
	조부모	31	2.1
	기타	20	1.4
	합계	1,458	100.0
비동거 사유	이혼	105	45.5
	사별	37	16.0
	직장	59	25.5
	기타	30	13.0
	합계	231	100.0
종 교	개신교	248	17.1
	천주교	81	5.6
	불교	315	21.7
	무교	788	54.4
	기타	17	1.2
	합계	1,449	100.0

2.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갈등유형

부부갈등을 측정할 22개의 항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5개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5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 분산은 67.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요인 1로 설명되는 분산은 20.2%로서 5개의 요인 중 상대적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첫 번째 요인은 ‘물리적 충돌형’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요인을 개념화한 이유는 다툼 후에도 계속 상대에게 나쁘게 대하고, 다투는 중 서로 밀치고 떠밀고 기물을 파손하거나 던진 적이 있어 물리적인 충돌성이 강하고, 다툼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과 욕을 하고 자녀에게 서로의 험담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도 동반하고 있다고 청소년기 자녀가 부모의 부부갈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인 1로 묶이는 항목들의 내적일치도를 반영하는 Cronbach α 값은 0.91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항목들 중 자녀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자주 다투거나 의견불일치를 본 적이 있고 다툼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낸다고 자녀가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 물리적 충돌성향이 강한 요인 1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인 2는 ‘의견 불일치형’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견 불일

치형 성향을 지닌 경우는 물리적 폭력성향을 보인 요인 1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갈등양상에서 의견 불일치를 주로 보이는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 2로 구조화되는 항목들의 Cronbach α 값은 0.814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은 다툼 때 자녀 탓이라고 하고, 자녀 진로 때문에 자주 다투고, 자녀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며, 부모는 물론, 자녀 스스로도 부모의 다툼이 자신 때문이라고 인지하고 있어 부모의 다툼이 자녀의 진로문제 등의 자녀문제로 인해 발생하므로 요인 3은 ‘자녀문제 갈등형’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요인은 다툼 후 금방 화해하고 잘 해결이 되는 등으로 의견불일치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내는 갈등형태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 지향형’으로 자녀가 부모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특징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다툼을 목격하고 이혼을 하거나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정서를 반영하고 있어 요인 4에서의 긍정적인 인식양상과는 달리 ‘가족해체 우려형’으로 두려움, 부정적인 인식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인 5에 포함된 두 항목이 가족해체 우려형으로 개념화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를 반영하는 Cronbach α 값은 0.857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부갈등유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항 목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문제해결 지향형	가족해체 우려형
다툼 후에 여전히 서로에게 나쁘게 대한다.	0.731	0.112	0.303	0.287	0.179
다툼은 중 서로 밀치거나 떠민 적이 있다.	0.706	0.086	0.207	0.185	0.342
다툼 때는 서로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한다.	0.705	0.302	0.163	0.201	0.203
다툼은 중에 기물파손이나 던진 적이 있다.	0.701	0.184	0.130	0.152	0.321
내가 옆에 있어도 서로에게 나쁘게 대한다.	0.695	0.368	0.141	0.210	0.050
다툼은 것을 자주 본다.	0.590	0.489	0.224	0.199	0.130
다툼 후에도 서로에게 화가 잘 안 풀린다.	0.580	0.212	0.189	0.410	0.127
가끔 내게 서로의 험담을 한다.	0.522	0.226	0.464	0.187	0.073
다투거나 의견불일치를 본 적이 있다.	0.118	0.805	0.076	0.136	0.144
다툼 때 화를 굉장히 많이 낸다.	0.328	0.738	0.073	0.175	0.222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나 자주 다투거나 의견 불일치가 있다.	0.328	0.668	0.201	0.188	0.114
의견 불일치 때 조용히 의논한다.	0.088	0.529	-0.133	0.491	0.088
집에서 서로 자주 잔소리와 불평을 한다.	0.478	0.506	0.209	0.052	-0.011

<표 2> 계속

항 목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문제해결 지향형	가족해체 우려형
다툼 때 내 탓이라고 한다.	0.178	0.049	0.806	0.093	0.179
나의 진로 때문에 자주 다툼다.	0.209	-0.001	0.797	0.013	0.025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다투는 것은 나 때문인 것을 안다.	0.014	0.147	0.703	0.045	0.416
다툼 때 자신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0.314	0.145	0.568	0.030	-0.023
다툼 후 보통 금방 사이가 좋아 진다.	0.295	0.044	0.096	0.785	0.116
다투면 보통 잘 해결 된다.	0.229	0.130	0.083	0.760	0.071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이 불일치할 때 대부분 해결책을 찾아낸다.	0.142	0.305	0.045	0.722	0.070
다툼 때 이혼을 할까봐 두렵다.	0.279	0.164	0.186	0.131	0.804
다툼 때 나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0.333	0.230	0.172	0.136	0.781
Eigenvalue	4.449	3.026	2.796	2.557	1.912
% of Variance	20.221	13.756	12.710	11.623	8.690
Cumulative Variance	20.221	33.977	46.687	58.309	66.999
Cronbach's α	0.913	0.814	0.796	0.766	0.857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1) 청소년의 일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 자아의 경우, 독립변수로 포함된 부부갈등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산을 35.0%($R^2=0.35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유형 중 의견 불일치형과 자녀문제 갈등형은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자아와 부적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이 인지하기에 부모가 갈등 상황에서 의견이 불일치할수록 그리고 자녀 문제로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청소년 자신의 일반적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비해 문제해결 지향형은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자아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다하더라도 그러한 갈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인지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일반적 자아도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리적 충돌형과 가족해체 우려형은 청소년의 일반적 자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β값을 중심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부부갈등유형 중 문제해결 지향형 ($\beta=0.153$)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일반적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청소년의 경우 성별과 학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경우 어머니 연령과 주관적 소득계층이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중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저학년일수록 일반적 자아가 높은 경향이 있고, 어머니 연령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일반적 자아가 높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3>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일반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일반적 자아		
	B	Beta	t	p	
(상수)	3.829***		17.705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30	0.047	0.946	0.344
	의견 불일치형	-0.082**	-0.119	-3.042	0.002
	자녀문제 갈등형	-0.075**	-0.108	-3.027	0.003
	문제해결 지향형	0.101***	0.153	4.488	0.000
	가족해체 우려형	0.004	0.009	0.259	0.796
청소년 성별	-0.187***	-0.144	-5.367	0.000	
청소년 학년	-0.030*	-0.058	-2.094	0.036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어머니 연령	0.008*	0.053	1.929	0.054
	아버지 학력	0.026	0.051	1.547	0.122
	어머니 학력	0.003	0.006	0.194	0.846
	주관적 소득계층	0.094**	0.071	2.544	0.011
	어머니 취업유무	-0.019	-0.015	-0.577	0.564
F		14.669***			
R ²		0.350			

*p<0.05 **p<0.01 ***p<0.001

2) 청소년의 학급 및 성취 자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급 및 성취 자아 함수의 설명력은 35.4%(R²=0.3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녀의 학급 및 성취 자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문제해결 지향형 등이며, 이들 유형들 중 문제해결 지향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모두 청소년 자녀의 학급 및 성취 자아와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별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학급 및 성취 자아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부부갈등유형 중 자녀문제 갈등형($\beta=-0.168$)의 영향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 지향형($\beta=-0.161$), 물리적 충돌형($\beta=-0.102$), 의견불일치형($\beta=-0.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중 청소년 성별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그리고 어머니 학력과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급 및 성취 자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학급 및 성취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학급 및 성취 자아			
		B	β	t	p
	(상수)	3.607***		16.983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63*	-0.102	-2.040	0.042
	의견 불일치형	-0.055*	-0.081	-2.108	0.035
	자녀문제 갈등형	-0.115***	-0.168	-4.750	0.000
	문제해결 지향형	0.103***	0.161	4.754	0.000
	가족해체 우려형	-0.008	-0.016	-4.68	0.640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청소년 성별	-0.087**	-0.067	-2.517	0.012
	청소년 학년	-0.006	-0.011	-0.406	0.685
	어머니 연령	0.007	0.046	1.678	0.094
	아버지 학력	0.028	0.057	1.732	0.083
	어머니 학력	0.041**	0.078	2.371	0.018
	주관적 소득계층	0.151***	0.115	4.153	0.000
	어머니 취업유무	-0.062	-0.051	-1.902	0.057
	F		15.115***		
	R ²		0.354		

*p<0.05 **p<0.01 ***p<0.001

3) 청소년의 가족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가족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로 포함된 부부갈등유형이 가족적 자아 분산을 32.3%(R²=0.323) 설명하고 있다. 부부갈등유형에서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가족해체 우려형은 청소년의 가족적 자아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문제해결 지향형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적 충돌이 심할수록, 의견이 불일치할수록, 자녀문제 갈등이 심할수록,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가 깊을수록 가족적 자아도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록 부모가 갈등적 상황에 있더라도 청소년이 그러한 부모의 갈등이 중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고 인지할수록 가족적 자아는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 유의한 유형들 중 β값을 중심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자녀문제 갈등형(β=-0.305)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문제해결 지향형(β=-0.195), 의견 불일치형(β=-0.173), 가족해체 우려형(β=-0.144), 물리적 충돌형(β=-0.11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어머니 연령과 소득계층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가족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가족적 자아			
		B	β	t	p
	(상수)	5.108***		22.501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83**	-0.110	-2.536	0.011
	의견 불일치형	-0.142***	-0.173	-5.016	0.000
	자녀문제 갈등형	-0.253***	-0.305	-9.812	0.000
	문제해결 지향형	0.151***	-0.195	-6.462	0.000
	가족해체 우려형	-0.083***	-0.144	-4.734	0.000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청소년 성별	-0.062	-0.040	-1.708	0.088
	청소년 학년	0.007	0.012	0.489	0.625
	어머니 연령	0.008*	0.048	1.979	0.048
	아버지 학력	0.007	0.011	0.391	0.696
	어머니 학력	-0.011	-0.017	-0.569	0.570
	주관적 소득계층	0.118**	0.074	3.023	0.003
	어머니 취업유무	-0.041	-0.028	-1.198	0.231
	F		49.924***		
	R ²		0.323		

*p<0.05 **p<0.01 ***p<0.001

4)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유형은 자녀문제 갈등형과 문제해결 지향형이며 이들 두 유형 중 자녀문제 갈등형은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 문제해결 지향형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문제에 대한 갈등이 심하게 노출될수록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문제해결 지향형은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가족해체 우려형은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와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β값은 문제해결 지향형(β=0.202)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자녀문제 갈등형(β=-0.0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청소년 학년이 사회적 자아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계층과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표 6>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사회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사회적 자아			
		B	β	t	p
	(상수)	3.836***		21.115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45	-0.086	-1.726	0.085
	의견 불일치형	-0.013	-0.022	-0.568	0.570
	자녀문제 갈등형	-0.057**	-0.098	-2.761	0.006
	문제해결 지향형	0.110***	0.202	5.874	0.000
	가족해체 우려형	-0.019	-0.047	-1.358	0.175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청소년 성별	-0.016	-0.015	-0.547	0.585
	청소년 학년	0.029**	0.068	2.431	0.015
	어머니 연령	0.004	0.034	1.235	0.217
	아버지 학력	0.025	0.060	1.810	0.071
	어머니 학력	-0.001	-0.001	-0.040	0.968
	주관적 소득계층	0.094**	0.085	3.029	0.002
	어머니 취업유무	-0.019	-0.019	-0.693	0.489
	F		12.208***		
	R ²		0.322		

*p<0.05 **p<0.01 ***p<0.001

5) 청소년의 정서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정서적 자아 함수는 설명력이 38.7%(R²=0.38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유형은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문제해결 지향형 등이며 이들 유형들 중 의견 불일치형과 자녀문제 갈등형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유형들의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문제해결 지향형은 청소년의 정서적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해 보면 부부갈등유형 중 자녀문제 갈등형(β=-0.202)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고 문제해결 지향형(β=0.159), 의견 불일치형(β=-0.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별은 다른 자아개념과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정서적 자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어머니의 연령과 주관적 소득계층은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 연령이 많을수록 그리고 소득계층 역시 높을수록 청소년의 정서적 자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표 7>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정서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서적 자아			
		B	β	t	p
	(상수)	3.790***		18.745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44	0.073	1.520	0.129
	의견 불일치형	-0.067**	-0.102	-2.695	0.007
	자녀문제 갈등형	-0.135***	-0.202	-5.838	0.000
	문제해결 지향형	0.099***	0.159	4.810	0.000
	가족해체 우려형	-0.012	-0.026	-0.780	0.436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청소년 성별	-0.136***	-0.110	-4.174	0.000
	청소년 학년	0.019	0.038	1.417	0.157
	어머니 연령	0.007*	0.052	1.961	0.051
	아버지 학력	0.020	0.042	1.282	0.200
	어머니 학력	0.025	0.049	1.501	0.134
	주관적 소득계층	0.106**	0.083	3.050	0.002
	어머니 취업유무	-0.008	-0.007	-0.271	0.787
	F	18.849***			
	R ²	0.387			

*p<0.05 **p<0.01 ***p<0.001

6)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와 부부갈등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해체 우려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 지향형은 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부모가 물리적 충돌이 심할수록, 의견이 불일치할수록, 자녀문제로 인한 갈등이 심할수록 청소년이 인지하는 신체적 자아는 부정적인 경향을 띠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부모의 갈등이 문제해결 지향적으로 귀결된다고 인지하는 경우 신체적 자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 유형들 중 자녀문제 갈등형(β=-0.132)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 지향형(β=0.116), 물리적 충돌형(β=-0.111),이 그 다음 순이며 의견 불일치형(β=-0.077)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 중 청소년 성별과 주관적 소득계층이 신체적 자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신체적 자아가 더 높은 경향이 있고,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신체적 자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신체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체적 자아			
		B	β	t	p
	(상수)	3.624***		16.515	0.000
부부 갈등 유형	물리적 충돌형	-0.070*	-0.111	-2.193	0.028
	의견 불일치형	-0.053*	-0.077	-1.967	0.053
	자녀문제 갈등형	-0.091***	-0.132	-3.609	0.000
	문제해결 지향형	0.075***	0.116	3.323	0.001
	가족해체 우려형	-0.001	-0.003	-0.075	0.941
사회 인구 학적 변수	청소년 성별	-0.141***	-0.109	-3.943	0.000
	청소년 학년	0.010	0.019	0.669	0.504
	어머니 연령	0.002	0.011	0.384	0.701
	아버지 학력	0.013	0.026	0.764	0.445
	어머니 학력	0.020	0.038	1.104	0.270
	주관적 소득계층	0.105**	0.080	2.791	0.005
	어머니 취업유무	0.001	0.001	0.019	0.985
	F		7.107***		
	R ²		0.250		

*p<0.05 **p<0.01 ***p<0.00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부부갈등유형을 규명하여 각 유형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알아보고 부부갈등유형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부부갈등은 동질적 특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갈등요인 및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구조화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갈등유형은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전체적으로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가족해체 우려형은 청소년의 자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문제해결 지향형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부가 가정을 이루며 생활하다보면 갈등 없이 살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부모의 갈등적 상황이 어떻게 비쳐지고 인지되는가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소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점은 일관되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자아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자아개념 중 가족적, 사회적 자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일반적, 학교 및 성취 자아, 정서적·

신체적 자아는 여학생이 낮았다. 청소년 자아개념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성별은 중요한 변수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또 다른 점은 부모교육 및 부모-자녀 관계 관련 상담이나 프로그램은 모든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부부갈등유형의 구조 및 속성에 따라 적용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나 접근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부부갈등유형에 따른 접근방법은 청소년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상담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도 필요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윤아 · 김득성 (2011). 부부갈등악화 의사소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인지행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9권 7호 통권 273호, 67-80.
- 김말남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환경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 남궁지영 · 김정민 (201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개념 발달양상 분석. 인간발달연구. 제19권 1호, 215-238.

부부갈등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그레이스 정(서울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유형별로 파악하고 청소년 자녀의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자녀가 인식하는 부부갈등을 단순히 종합적인 갈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갈등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부부갈등이 물리적 충돌형, 의견 불일치형, 자녀문제 갈등형, 문제해결 지향형, 그리고 가족해체 우려형 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이렇게 구분되어진 각 유형들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논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부부갈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건강한 자아개념 형성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적 과업임을 인지할 때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보완점을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변수들에 대한 보다 깊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연구 목적의 근거를 탄탄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부부갈등을 유형화해서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부부갈등유형 관련 선행연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부부갈등 유형의 영향을 살펴보는데 왜 많은 자녀관련 요인들 중 자아개념을 선택하였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더해진다면 논문의 의의가 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전달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부부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선행연구들이 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부부갈등이 청소년 자녀뿐만이 아닌 영유아기와 아동기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왜 청소년 자녀에 초점을 맞추었는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해서 12개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거주 학생들을 통해서도 설문지를 수집하였다고 했는데 참여자 중 몇 명이 지역거주 학생인지, 어떻게 모집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리적 충돌형의 문항들을 보면 8개의 문항 중 6개의 문항은 물리적 충돌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워 보이는데 (예: 다투는 것을 자주 본다, 다툰 후에도 서로에게 화가 잘 안풀린다, 내가 옆에 있어도 서로에게 나쁘게 대한다 등), 다른 이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관적 소득계층이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몇 가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변수들과 부부갈등유형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 테스트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나타난다면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